

자유·젊음...여름 록페스티벌의 모든 것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여름의 절정을 향해 갈 즈음, 너른 평원에서 자유와 젊음으로 포효하는 한바탕 무대가 펼쳐진다. 모여든 젊은이들과 관객은 무대 위 아티스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하며 음악을 넘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즐긴다. 타인의 눈치를 볼 것도 없다. 그저 공간을 울리는 현란하고 웅장하면서 신나는 리듬에 맞춰 자신을 내던지기만 하면 된다. 록 페스티벌! 28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는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페스티벌과 8월11일 막을 올리는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을 비롯해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열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랫츠록 페스티벌 등이 바로 그 무대다. 스포츠동아가 그 무대의 가이드를 자임하며 록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풀어 놓는다.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인천 펜타포트 락	부산국제록	랫츠락
일시	7월28일~30일	8월11일~13일	8월11일~13일	9월23~24일
장소	경기 이천 지산 리조트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	부산 삼락생태공원	서울 난지한강공원 중앙친디광장
가격	1일권 16만원/3일권 26만원	1일권 9만원(금)·13만원(토)/2일권 18만원/3일권 22만원	무료	1일권 7만7000원/2일권 11만9000원
개요	최정상급의 뮤지션들과 예술 작가들의 컬래버레이션	항만의 도시 인천에서 펼쳐지는 진정한 음악축제. 음악, 열정, 자연주의, DIY, 우정 등 다섯 가지 의미 내포	음악이 즐겁고, 사람이 즐겁고, 자연이 즐겁다.	도시형 최대의 뮤직 페스티벌! 다양한 아티스트의 무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관객과 함께!
헤드라이너 및 주요뮤지션	메이저 레이지, 시규어 로스, 고릴라즈, 갈란트, 핵오, 이적, 자우림	바스틸, 저스티스, 국카스텐, 5 세컨즈 오브 서머, 두아 리파, 찰리XCX, 디엔씨어	이브, 한영애, 널, 로맨틱펀치, 스틸하트, 피아	YB, 널, 어반자카파, 자이언티, 불빨간 사춘기, 10cm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아 유 레디? 다같이 소리질러!

국내 원조 인천 펜타포트 11일 개막
강산에 등 국내 유명뮤지션 총출동
이적·자우림 무대 오르는 지산록페
EDM 스타 '메이저 레이지'도 참여

랑스 출신 일렉트로닉 뮤지션 저스티스 등도 참여한다.

●지산, 록 페스티벌의 떠오르는 무대

지산 밸리록은 28일 막을 올린다. 경기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30일까지 펼쳐지는 올해 무대는 음악을 넘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술작가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내세우고 있다. '보는 공연'에서 나아가 좀 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안겨주겠다는 취지이다. 올해 키워드를 '하이드 앤드 시크(Hide & Seek)'로 내세운 것도 페스티벌 안 곳곳에 숨은 예술콘텐츠를 찾는 재미를 더한다는 의미다.

그래도 가장 핵심은 뮤지션 라인업. 가장 눈길을 모을 전망인, 3D 캐릭터로 구성되는 가상 밴드 프로젝트 고릴라즈를 비롯해 아이슬란드 출신 밴드 시규어 로스,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의 대표스타 메이저 레이지, 밴드 루카스 그레이엄 등 해외 뮤지션에 이적, 널, 핵오, 자우림 등 국내 뮤지션들도 대거 무대에 오른다.

●부산..., 서울...

펜타포트와 밸리록만 있는 건 아니다. 부산록페스티벌 역시 조금씩 제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또 다른 무대다. 공교롭게도 인천 펜타포트와 같은 기간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펼쳐져 록 마니아들을 난처하게 하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대형 무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00년 출범한 부산록페스티벌은 올해 내구에도정장치, 한영애, 널, 스틸하트, MC스나이퍼, 피아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을 무대에 올린다.

뜨거운 여름 페스티벌이 한 차례 지나가면 9월23일과 24일 서울 한강 난지공원에서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 올해 11번째를 맞는 랫츠락 페스티벌이다. 특히 수변무대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3개의 무대에서 즐거움을 맞출 수 있다. 이승환을 비롯해 노브레인, 장미여관, 자이언티, 불빨간사춘기, 어반자카파, 크라이넛, 신현희와 김루트, 존박, 곡진언, 갤럭시익스프레스 등 대중적 인기를 확보한 팀들이 대거 관객을 만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인천 펜타포트, 대표적 록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록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만큼 그동안 다양한 아티스트와 뮤지션을 소개하며 관객의 환호를 얻어왔다. 12년 동안 누적 68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1200여개 팀(명)을 무대에 세운 '펜타포트'는 '음악·열정·자연주의·DIY(Do It Yourself)·우정'의 '다섯'(pent a) 철학을 내세워 정통 록 페스티벌로서 자리 잡았다.

올해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11일 국카스텐이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서 열정을 드러내며 막을 올리고 강산에, 불빨간 사춘기, 킴스틴 루디스카, 레이저본, 에이프릴세컨즈, 악동뮤지션, 장기하와 얼굴들, 브로콜리 너마저 등 국내 유명 뮤지션이 대거 무대에 오른다. 또 영국 밴드 바스틸과 디엔씨어, 영국 얼터너티브 록의 신흥 강자로 꼽히는 유 미 옛 식스, 프

노출 OK...남자들도 윗옷 벗어라

록페, 100배 즐기기

펼 준비, 여성들 하이힐·샌들은 비추
한국정도 외위 가 떴장 전용 만끽도

'펼 준비 되셨습니까!'

록 페스티벌을 위한 특별한 준비물은 없다. 최대한 가벼운 복장과 간단한 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뛰어도 지치지 않을 체력만 있다면 일단 오케이(O.K.)다. 덤으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정보까지 미리 체크한다면 록 페스티벌을 100배로 즐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상. T.P.O(시간·장소·상황) 고려는 필수다. 오후부터 공연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다. 여성은 튜브톱, 등이 훤히 드러나는 슬리브리스, 핫팬츠 등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을 정도의 노출 의상은 인파 속에서 주위 시선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이다. 남성의 경우 이날만큼은 상의를 탈의해도 환영받을 수 있다. 움직임이 많기에 발이 미끄러져 부상의 위험이 있는 하이힐, 플립 플롭(샌들)보다는 운동화를 추천한다. 우천시를 대비해 장화나 우의도 준비하고, 모기와 벌레 퇴치를 위한 약품도 필수품이다.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양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큰 짐은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간단한 소지품만 지참하도록 한다. 분실이 걱

정된다면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수시로 '인증샷'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셀카봉'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라인업 체크도 필수. 출연 가수들의 노래 한 곡쯤 가사를 외워간다면 더욱 신나게 즐길 수 있다. '떼창'을 통해 가수와 한 목소리로 소통하는 전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많이 낭패를 보는 일은 돈을 아끼기 위해 먹을거리를 바라바리 싸가는 것이다.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페스티벌은 음식 반입이 가능하나,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은 식중독 등의 문제로 금지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내부에 마련된 푸드존에서 해결하는 게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대부분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는 공연의 마지막, 심야 시간에 등장한다. 귀가가 걱정되는 관람객을 위해 지산 밸리록 뮤직앤드아츠 페스티벌은 셔틀버스 사전예약 서비스, 인천 펜타포트락 페스티벌은 꽃가마서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이다. 한 공간에 수만 명의 관객이 동시에 몰리기에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는 관람매너를 잘 지키고,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도 잘 따라야 한다. 택 트인 자연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주된 목적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1967년 첫 록페, 전설들의 축제였지

록페, 어떻게 탄생했나?

지미 헨드릭스·사이먼 앤 카펅클 등
몬트레이 페스티벌, 톱 스타 총출동

록 페스티벌은 여러 밴드들이 며칠에 걸쳐 진행하는 대규모 음악 축제다. 택 트인 야외에서 공연을 펼친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렇다면 록 페스티벌은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났을까.

해마다 여름이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대형 록 페스티벌의 효시는 1967년 6월16일부터 사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에서 열린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이 꼽힌다. 지미 헨드릭스, 사이먼 앤 카펅클, 마마스 앤 파파스 등 당대의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첫 번째 대형 음악 페스티벌로 기록되고 있는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은 현재 '지구촌 록 페스티벌의 상징'인 우드스톡 페스티벌 탄생의 디딤돌이 됐다. 이 당시는 록 음악이 꽃피우기 시작해 그 열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때였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록 페스티벌이 생겨났다.

현재 미국의 대표 록 페스티벌이라 하면 우드스톡, 롤라팔루자, 오즈페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1969년 뉴욕 베델 평원에서 처음 열렸다. 기획 당시에는 밥 딜런의 고향인 우드스톡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베델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을 대표하는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도 1970년에 처음 시작했다. 50년 가까이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연은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열린다. 정식 명칭은 글래스턴베리 현대 공연예술 페스티벌. 주로 록 밴드들이 무대를 독점하다시피 하다가 힙합가수 제이지, 비욘세, 카니예 웨스트, 아델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 글래스턴베리와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레딩 앤 리즈를 포함해 다운로드, 몬스터 록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후지 록 페스티벌과 서머소닉이 양대 페스티벌로 꼽힌다. 1997년 시작된 후지 록 페스티벌은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일본 내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록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17주년을 맞는 서머소닉은 규모 면에서 일본 최대 페스티벌이다. 매년 8월 도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국내 록 페스티벌 주최 측은 일본의 양대 페스티벌 추과 연계해 출연자를 섭외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워 휴가 겸 일본 록 페스티벌을 찾는 록 마니아들이 많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부산 록페스티벌